

민 정 실	음 진 천
-------------	-------------

B U D D H A N A R A

우리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법회
 둘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시 전법기도 법회 및 건강 강좌
 넷째주 일요일 11시 자비수참 (108 대참회 기도 법회)
 다섯째주 일요일 특별 법회

불국사 콜롬비아 지역 법등 법회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Sun Meeting -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홀로 머물 수 있고
 홀로 쉴 수 있는 사람
 자기 일에 권태 느끼지 않고,
 기쁨 안에서 살며
 자기 주인 되어
 욕망의 숲 밖에서 산다네.

He who can be alone and rest alone and is never weary of his great work, he can live in joy, when master of himself, be the edge of the forest of desires.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도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5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세계속의 불교 소식: 100 만 불자 시대... “불교 봄 거세다”

‘2006 독일 월드컵’을 계기로 본 독일 불교

기독교 신자 감소, 선센터로 몰려, 달라이라마 열풍... 불교관심 급증



사진설명: 독일불교계는 최근 달라이라마를 둘러싸고 새로운 불교열풍이 불고 있다. 불교신문 자료사진

한국축구가 2006년 독일월드컵 본선 티켓을 확보했다. 요하네스 본프레레 감독이 이끄는 한국축구 대표팀은 지난 9일 새벽 쿠웨이트를 4대0으로 대파, ‘2006 독일 월드컵’ 본선진출을 확정지었다. 이에 국내 월드컵 열기가 독일로 전파되고, 전국민의 관심이 독일로 쏠리고 있다. 1924년 파울 달케라는 의사가 독일 베를린에 최초의 불교사원을 건립한 이래 독일불교계의 변모과정을 독일 월드컵을 계기로 살펴봤다.

독일불교계는 몇해 전부터 달라이라마를 둘러싸고 새로운 불교열풍이 불고 있다. 독일내 불교인구의 급성장 배경에는 달라이라마의 카리스마와 티베트 사원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한다. 독일의 대표적 시사주간지 ‘스텐’지는 “독일인들이 달라이라마를 통해 사물을 여실하게 보는 방법을 배운다”며 “망상과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사람들이 점점 불교를 찾는다”고 보도했다.

현재 독일내 불교공동체 수는 약 600여 곳. 1970년대 초 15개에 불과하던 수와 비교하면 약 40배가 늘었다. 독일 불교도연맹의 통계에 따르면 독일내 수행자 수는 20만명(2004년 기준)이 넘으며 불교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약 100만에 달하고 있다. 불교수행이 붐을 이루면서 수행공간과 수행법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과거 불자들이 각 가정에서 수행한 반면 이제는 옛 수도원이던 건물을 구입해서 공동수행처로 만들고 있다. 최근 함부르크 시내 상파울르 지역에서 젊은 불자들은 오래된 선박용 공장을 개조해서 수행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도 각 도시마다 스리랑카 일본 중국 한국 티베트 등 동양 각국의 스님들이 세운 선센터도 운영되고 있다. 이중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티베트 사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기있는 수행법은 남방불교의 수행법인 위빠사나. 위빠사나는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대중적인 수행법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처럼 독일의 불교 붐에 대해 뮌헨대학 신학과 미카엘 폰 브릭 교수는 “어려움과 가난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도피가 아닌 동정심과 비폭력으로 설법하는 달라이라마가 독일인들에게 크게 어필되고 있다”며 “달라이라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스스로를 잘 이해하고 청정하게 되는 철학을 제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바를 몸소 체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독일 내에서 <달라이라마의 행복론>은 수백만부가 팔렸다. 또 교회의 정기 예배에 참석하는 신도의 수가 줄어드는데 반해 선센터를 찾는 사람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서도 브릭 교수는 “국교로 인정되는 기독교에서 삶의 해답을 얻지 못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인간 내면의 자성을 찾아가는 불교의 가르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독일불교의 역사는 1903년 라이프치히의 학자 칼 자이텐스퉁커가 불교연맹을 결성하면서 시작됐다. 독일의 대표적인 철학자 쇼펜하우어, 니체, 소설가 헤르만헤세, 음악가 바그너 등 근대 독일의 문화를 주도하던 지식인들이 불교를 소개하기 시작했고, 이들의 작품속에 반영된 불교는 독일인에게 정신적 자양분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후 스리랑카 티베트 중국 일본의 스님과 불교학자들이 독일 전역에서 불교를 소개하면서 현재 독일내 100만 불자 시대에 달한 것이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삼귀의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분인지?

Q: 대승불교에서는 법신과 보신과 화신의 삼신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불자의 기본인 삼귀의 중 ‘부처님께 귀의한다’고 할 때 정확히 어떤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삼신 중 역사적인 인물인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부처님 제자들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불탑을 중심으로 인격적인 스승을 흠모하고 경배한 사실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이러한 불탑숭배가 재가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출가자들은 부처님이 설하신 법(法. 가르침)이 부처님을 대신한다고 생각해 법을 통해 부처님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출가자들은 부처님의 육신(肉身)이 아니라 법신(法身)에 귀의해야 한다는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 의하면 부처님의 육신이 비록 32 상(相) 80 종호(種好)를 갖춘 완벽한 몸이라고 해도, <이 육신은 부처님만의 특징이 될 수 없고 법에 의해 구성된 법신(法身)만이 부처님을 특징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야경>에는 육체를 통해 부처님을 보려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로 묘사하여, “여래는 육신으로 볼 수 없다. 법신이 여래이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반야부 경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법신인 셈입니다.

대승불교에 법신불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석존의 육신은 수많은 과거 생에 펼친 자비 수행으로 성취한 공덕의 결과이자 자비의 화신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법신(法身)과 보신(報身)과 화신(化身)이라는 삼신설로 발전하여 정형화하게 됩니다. 첫째, 법신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신은 진리의 인격화된 모습이므로 석존이 보인 진리인 법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법은 생하거나 멸하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존재하므로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출현하던 출현하지 않던 진리는 영원히 존재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신은 법계(法界)와 같은 것이며 실로 우주 전체이며 실재입니다.

둘째, 보신은 완전한 즐거움의 몸으로 물질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육신입니다. 보신은 32 상과 80 종호를 갖추고 정도에서 대중들에게 대승을 가르치는 불신입니다. 이 보신에 의해 시방세계에 무량한 부처님이 현재한다는 ‘현재 타방불(現在他方佛) 사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타방불 사상을 대표하는 것은 역시 서방정토의 극락세계를 주관하시는 아미타불(阿彌他佛)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신은 초세간적인 모습이지만 현실에서 중생들이 숭배하는 부처님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화신은 근기가 낮아 정도에 태어나지 못하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방편으로 현현하는 모습입니다. 이 화신은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적절한 가르침을 펼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화현하는데, 석존의 전생이야기를 소재로 한 <자타카>에는 심지어 동물 등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화신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석가모니부처님의 생애입니다.

그렇다면 법신과 보신과 화신은 한 분일까요 여러 분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보신과 화신은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불신이므로 법신이 이들의 기반이 됩니다. 따라서 법신과 본성이 같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분하는 육신이 없기 때문에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 분 부처님만 계신다면, 그 분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면 다른 모든 존재들도 깨달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분이라고도 여러 분이라고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귀의하는 부처님은 법신과 보신과 화신을 포함한 시방삼세에 계신 모든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입니다.

<하룻밤에 읽는 불교: 소운스님 저서에서>

이달의 교리공부: 삼신(三身)

법신.보신.응신 등 부처님의 모습

법신(法身).보신(報身).응신(應身) 등 부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말한다. 삼신설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제자들 사이에서 부처님께서 입멸 후에도 존재하는지 여부와 존재한다면 인격적 존재인지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나왔다.

법신은 역사적인 인물인 석가모니부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법으로서의 부처님을 의미한다. 보신은 보살 위의 어려운 수행의 결과로 얻어진 무궁무진한 공덕을 갖춘 불신을 말한다. 이러한 공덕을 갖춘 전형적인 예가 바로 불신의 특징인 32 상 80 종호(三十二相八十種好)로 나타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랜 수행의 결과로 얻을 수 있었던

몸이 보신이다. 법신은 보신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 응신은 보신불을 친견하지 못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서 여러 가지 형상으로 출현하는 불신을 말한다. 과거 7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 미래의 미륵부처님 등이 이에 속하며, 인간의 형상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삼신을 이루는 법신, 보신, 응신 사이의 관계는 달(月)에 빗대어 나타낼 수 있다. 이는 마치 달 그 자체와 빛, 그림자와 같다고 해서 일월삼신(一月三身)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즉 법신의 모습이 유일상주불변인 것을 달 그 자체에 비유하며, 보신의 지혜가 법신의 모습에서 생겨 일체를 두루 비추는 것을 달의 빛에 비유할 수 있다. 또 응신은 변화하는 작용으로서 인연에 따라 나타나므로 달의 그림자가 물에 비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법회소식 NEWS

- 양력 8월 19일 (음력 7월 15일)은 백중(우란분절)입니다. 불국사에서는 양력 8월 14일 (음력 7월 10일) 부터 양력 8월 21일(음력 7월 17일)까지 백중(우란분절) 7일간 선망부보, 일가친척, 수자영가등 인연있는 모든 영가님들을 위한 기도를 봉행합니다.
우리 전통 명절인 백중. 우란분절은 신라와 고려시대부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참여하는 그야말로 성대한 날이었습니다. 특히 이 날은 불교의 5대 명절중 하나로, 조상님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효행의 날이기도 합니다. 목련존자의 효심에서 비롯된 우란분절, 부처님께 공양올리고 정진하며 조상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란분절에 보면 일년에 한번 백중날 지옥문이 열린다 합니다. 이날 신도님들과 인연있는 모든 영가들은 물론이고 지난 일년간 알게 모르게 원결을 짓게된 모든 짐승 및 벌레 영가들도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천도기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불국사와 인연있는 모든 신도님들은 빠짐없이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7일 기도 동참비는 \$50.00 (한국에서 동참하시는 분은 오만원 입니다.) 입니다만 경제 사정상 어려운 신도님들은 회장님이나 총무님과 상의 하셔서 기도비를 절충해 주십시오.
- 7월 셋째주 교리 탐구 주제 발표는 월성 이우곤 거사님께서 지난 달과 마찬가지로 “건강”을 주제로 연구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지난날 6월에는 “비타민 C”를 주제로 발표해 주셨는데 왜 비타민 C를 복용해야 되고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등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리 탐구는 신도님들 모두가 참가하는 장입니다. 모두들 유익하고 좋은 시간들 가지십시오.
- 7월 4째주 법회는 자비수참 (108 대참회 기도 법회) 법회가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서 가장 덥다는 일년중 7월이지만 8월에 있는 우란분절 (백중)을 맞이해서 대참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힘이 든다는 것을 전제하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날은 절하기에 간편한 복장으로 법회에 오십시오.
- 5번째주에 있는 특별법회 장소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특별법회 장소는 날씨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회중에 공지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분들은 회장님이나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 6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11번 정범스님, 12번 동기스님, 37번 경인생 한재근, 67번 갑오생 임현철, 68번 최선옥, 69번 신유생 임유나, 70번 병인생 임유미, 272번 경술생 오미경, 273번 경인생 월인 안수근, 274번 무자생 원만성 김영순, 275번 무오생 안준혁.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2째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
- 현재 불국사에서는 지붕 불사를 합니다.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두분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 성불하십시오. -
- 부다나라 템플(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BUDDHANARA TEMPLE)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